영산강 물줄기 따라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김지연 '영산강' 사진전…8월10일까지 생각상자갤러리

60년만에 찾은 서창 고향 집서 출발…매주 토요일 작가 설명회

김지연 사진작가(전주 서학동 사진관장)는 2년 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어릴 적 친구에게서 서창 고향집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옛집을 떠난 지 6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찾아간 집에서 그는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었다. 영산강의 지류인 광주천 서창대교 옆에서 태어나 난산마을에서 10살까지 자란 그에게 고향은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그만큼 아픈 추억도 많아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던 곳이었다.

영산강을 따라 가며 찍은 사진은 쌓여갔고, 이제 전시회를 통해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김지연 사진전 '영산강'이 오는 8월10일까지 생각상자 갤러리(광주시 동구 소태동 577의2)에서 열린다. 서울의 사진 전문 갤러리 류가헌에서 지난해 선보였던 전시로 줄곧 '광주 전시'를 염두에 두었다.

전주에 살고 있는 그에게 광주는 '회귀의 장소이자, 근원적인 것을 상기시키는 곳, 돌아가야할 마음의 공간'이었고 남도의 정서는 가슴에 박혀있었다. 어쩌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남광주역'전을, 류가헌에서 '광주극장'전을 연 것도 다 그 마음의 표현이었다.

"제 집이 있던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된 지 오래여서 당연히 아파트로 변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말을 듣고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을 때, 내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영산강이라는 지리학적인 요소를 따라가는 것도 의미있지만, 그 곳에 남아있을 나의 이야기와 주변의 이야기들, 머릿 속의 기억들을 꺼내 붙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산강을 찍는 작업은 1년 반 동안 계속됐다. 그의 사진은 영산강을 다 담지는 못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의 땅을 찾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고향집인 서창 다리 인근에서 시작된 사진찍기는 외갓집 동네 남평 정자교 주변, 아버지가 대촌에 세운 중학교 터, 외증조할머니의 조카가 살던 나주 배 과수원 주변으로 이어졌다. 또 강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서해바다에 이르는 목포 고하도의 풍경도 앵글에 담겼다.

영산강은 황룡강, 지석천, 극락천, 광주천, 함평천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으로 불려 어떤 이에게는 '새삼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그 이름들을 호명하고 영산강을 따라 걸으며 만난 풍경과 사람들과 이야기를 채집했다. 강줄기를 따라 사람을 만나고,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심히 따라갔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이 동무가 됐다.

사실, 영산강을 찍은 사진들은 많다. 작가는 스냅 사진처럼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앵글 대신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려했다.

"저의 과거, 저의 고향을 빌어 영산강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시선을 갖는다는 게 이 작업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펙터클한 장면이나,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내기 보다는 개인의 이야기로 영산강이라는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물사진도 몇 점 만날 수 있다. 고하도 등에서 만난 마음 따뜻한 어르신들이다.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오래 했던 그지만 늘 인물사진은 어렵다. 마을 빈집의 잡초를 일일이 뽑고 다니던 할머니는 "물 옆에 사는 게 겁나게 좋제"하며 웃었고, "자고 가라"며 마음을 전한 이도 있었다.

그의 말처럼 사진에 등장하는 영산강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앵글은 아니다. 시름, 역사, 고통이 넘실대는 탁하고 거친 물결이 굽이치는 곳이자,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풍경이다.

김 작가는 사라지는 것에 늘 눈길을 둬 왔다. 열화당에서 사진산문집 '전라선'과 '감자꽃'을 펴냈고 '자영업자'전, '삼천원의 식사'전, '근대화 상회'전, '정미소'전, '나는 이발소에 간다'전 등 그의 작업은 잊혀지는 것, 소시민들의 삶에 맞춰져왔다. 전북 진안의 쓰러져가는 정미소를 고쳐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버지가 무료로 운영했던 중학교 졸업생과 지금은 사라진 학교 터에서 찍은 사진과 60년도 넘은 당시 '졸업사진'을 함께 내걸었다. 또 유난스럽게 좋아했던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기억은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힘들 때마다 꺾이지 않도록,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음을 새삼스래 깨달았다.

작가는 소중한 영산강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을 공들여 제작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눈길을 주지 못했던 전주의 뒷골목 풍경을 담아보려한다.

전시를 기획한 주홍 생각상자갤러리 관장은 "그의 사진을 보고 새삼 영산강 곁에서 내가 강물 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 탁한 물 속에 비쳐 흔들리며 사라지는 자기 자신과 마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오전 11시~오후 4시)에는 작가에게서 직접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연 작가의 사진전에서 만나는 작품 '영산강(영산포)'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 근현대 패션과 문화'

김지연·변지유 등 참여…19일부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이 진행하는 '광주학 콜로키움'은 광주의 기원 등에 대해 조망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지난 2015년 시작됐다. 그동안 도시공간과 역사, 불교와 건축문화, 신창동 유물·유적지 등 근대도시 광주의 기원 등에 대해 탐구했다. 2020년에는 '근대 광주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건축사·서양화단·대중음악가를, 2021년에는 '근현대 광주 예술가들'을 주제로 동요작가 정근·명창 박동실·무용가 박금자·시인 김태오 등에 대해 알아봤다.

2022 광주학 콜로키움의 주제는 '광주 근현대 패션과 문화'다. 행사는 19일부터 9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학 콜로키움'은 1970년부터 80년대 광주 충장로를 중심으로 지역 패션계에서 역동적 활동을 펼친 주요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근현대 패션과 문화'에 대해서 조명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4시, '광주 패션의 발자취: 근현대부터 미래까지'를 주제로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김지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번 콜로키움은 1910년부터 1990년까지 광주패션계의 발자취와 주요 인물을 살펴보고 미래 광주패션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변지유

전병원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광주 패션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난다. 8월 2일에는 변지유 디저이너(변지유 부띠끄 대표)를 만나며 24일에는 박우근 광주한복협동조합 대표가 참여한다. 9월7일에는 전병원 명장(대한민국 제586호 패션디자이너·전병원 양복점 대표)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21일 마지막 강연에서는 간문자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가 '광주문화와 함께하는 저항패션'을 주제로 강연한다.

광주학 콜로키움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더운 계절의 생명력

국중효 기획·상설전, 8월26일까지 국윤미술관

'생명의 순환'

'화면에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

무등산 자락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기획 상설전을 진행한다.

'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관 설립자이기도 한 국중효 작가의 작품 14점을 선보인다.

독특한 질감과 조형성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있는 국 작가의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2000년대 초반부터 '생명의 순환'을 테마로 꾸준히 제작하고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전시작들은 국 작가 소장품 중 작가 고유의 서정성과 생명의 역동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작품들로 개성 있는 붓질이 돋보인다.

국 작가는 조선대 미술 교육과 및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오지호미술상 심사위원, 이인성 미술상 심사위원, 한국미술대전 서양화 심사위원장, 전라남도문화재단 이사을 역임했다.

개인전 15회, 단체전 300여회에 참여했으며 전매대상전 대상, 전남도문화상, 대한민국옥조근조훈장을 수상했다. 현재는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사, 목포대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민준 독주회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민준〈사진〉 독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8번', 리스트 '스페인 광시곡 S.254',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을 연주한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8번'은 감각적인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이며, 리스트 '스페인 광시곡 S.254'는 스페인의 민속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낭만시대 관중을 휘어잡았던 곡이다.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은 슈만의 풍부한 감정과 독특한 악풍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김민준은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 전학년 실기우수상 및 공로상및 서울대학교실기우수장학금 졸업 후, 빈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김민준은 국내·외 최정상 연주자들의 반주자로 무대에 서는 등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후학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가진 귀국독주회에 이어 광주를 찾는 등 김민준은 왕성한 활동으로 다양한 연주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석 2만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븐틴_스냅숏'(일러스트)

K-POP 스타 팬 아트, 세븐틴 '스냅숏' 대상

아트워크 225점 출품…캐릭터공모 대상 '페이퍼토리 저금통'

아이돌 가수 세븐틴과 광주를 상징하는 캐릭터 '오매나'가 어울리고 있는 일러스트부터, BTS의 멤버 뷔 뒤에서 포효하는 호랑이, 그룹 블랙핑크를 자수로 표현한 공예품까지.

K-팝 '팬시티'로 떠오른 광주에서 K-팝 스타들을 주제로 한 팬 아트 공모전이 열렸다. 광주관광재단은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K-POP 팬 아트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K-팝 팬 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팬들이 다양한 팬 아트를 제작, 공유하고 K-팝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글로벌 K-POP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POP 스타 팬 아트'를 주제로 다양한 아트워크 225작품이 출품됐으며, K-팝 분야 전문가와 예술·디자인학 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35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에는 아이돌 가수 세븐틴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스냅숏'이 선정됐다. 대상작 '스냅숏'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에는 '방탄소년단 뷔-보라해', '블랙핑크 korea this love', '방탄소년단_DREAM GLOW(빛나는 꿈)'이 선정됐다.

오매나 캐릭터 소주잔

대상작을 포함한 35작품은 올 하반기 광주 지하철 금남로 4가 역사 내에 마련된 팬존3에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개최된 '2022 오매나 캐릭터 우수 상품 공모전'에서는 대상인 DNA디자인스튜디오의 '오매나 캐릭터 페이퍼토이 저금통'을 비롯, 20개의 상품이 선정됐다.

페이퍼토이, 책갈피, 소주잔, 방향제, 네임택, 손거울, 돗자리 등 선정된 20개의 오매나 캐릭터 우수 상품 중 일부는 제작자와 협의를 통해 관광 기념품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